

# “50년 서예인생 글씨 변화과정 한눈에”

정광주 선생 고회 맞아 서집 발간...서예·서각 등 600여점  
9~15일 무등갤러리, 16~31일 관선재 갤러리서 기념전도

“글씨는 어제 쓰고 오늘 쓰면 다르다고 해요. 서집(書集)을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옛날 글씨들을 보니 어리숙하기도 하지만 소박하고 순수한 면도 있더군요. 무엇보다 제 글씨의 변화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20년 정도 교정했는데, 처음에는 이만하면 내놓을만하다 싶었는데 계속 들여다보니 ‘더 좋은 작품을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서예가 금초 정광주 선생은 올해 고회를 맞았다. 1972년부터 시작된 서예 인생도 일주 50년을 넘어간다. 마치 자서전을 쓰듯, 세월에 따라 서서히 변해온 작품 세계를 갈무리하고 싶은 마음은 전시회와 서집 발간으로 이어졌다.

광주 예술의 거리 서실(書室)에서 만난 그는 이번 서집을 준비하며 ‘어제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로 살고 싶다’를 삶의 모토로 잡았다고 했다. 모든 사람과 만물이 스승이라는 걸 이제가 깨닫는다며, 팔목상대할 만한 글씨를 남기는 마지막 꿈을 꾸고 있다고 했다.

‘위위불진’(爲爲不盡)을 주제로 열리는 전시는 광주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9~15일)와 관선재 갤러리(16~31일) 두 곳에서 열리며 서집에 실린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B4 크기, 340페이지 울컬러로 제작한 서집에 실린 작품은 1984년 4회 개인전부터 지난 2017년 인사동에서 ‘채근담’을 주제로 진행한 9회 개인전까지에서 보여준 작품과 신작 등 2000여점에서 선별한 것들이다. 순수 서예작품 281점과 도자기, 비문과 사찰의 대웅전 현판, 소중한 인연과 세월이 담긴 수백점의 서각 작품 등 모두 600여점이 실렸다. 특히 꼼꼼히 기록한 약력과 80여장의 사진은 개인사(史)입과 동시에 광주·전남의 서예사(史)이기도 하다.

“서예를 시작하며 내 평생 개인전을 10회 정도는 해야겠다고 싶었어요. 서예가들은 다른 장르처럼 개인전을 자주 열지 못하거든요. 개인전마다 작품집을 내기는 했지만, 서예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작품집은 늘 마음에 있었죠. 그러다 서예계 큰 어른신인 학정(이돈홍) 선생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당신이 자신의 작품을 정리하지 못하고 가신 게 참 아쉽더군요. 나를 위해서도,

후배들을 위해서도 의미있는 작업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직접 작업을 정리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는 조선대 영어교육학과 재학 시절, 송곡 안규동 선생의 광주서예원에서 첫발을 뒀다. 서각고에서 4년간 교사로 재직 후 서예에 올인한 그는 1989년 국전과 미술대전에서 서예가 최초로 분리돼 개최된 대한민국 서예대전에서 대상을 수상, 한국 서예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작품 뿐 아니라, 광주미술협회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가 요즘 몰두하고 있는 건 행서·초서다. 또 자신이 장안한 ‘필아트(feeling art)’ 작업도 하고 있다.

“전통예술은 고아함과 예스러움이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짧은 시절에는 조형성이 뛰어난 전서에 빠져 있었지요. 행·초서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맛이 느껴집니다. 행·초서 속에 전서와 예서의 맛이 다 들어있어요. 무게감과 장중함이 있는 행·초서가 제가 추구하는 글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록에는 치자물, 갈대꽃, 오리나무 등으로 천연 염색한 화선지에 글을 써 색다른 맛을 풍기는 작품과 동반 작품도 실렸다.

“성인들도 아는 것보다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가 쓰는 글씨’나 나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나, 그만큼 치열하게 쓰고 있다’ 자주 묻곤 합니다. 저와 달리 대학에서 정식으로 서예를 공부하고 일본과 중국에서 공부하며 새로운 서풍을 받아들이는 후배들도 눈여겨 봅니다. 결국은 자기 성찰이 중요하니까. 글씨를 쓰면 쓸수록 기쁨이 아니라, 중요한 건 자기 모습을 맡겨 지켜가며 수양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글씨 잘 쓰는 법은 결국 글씨 바깥에 있다라는 말이죠.”

자신에게, 후배에게 부끄럽지 않은 작가이자 선배이고 싶다는 노(老) 작가는 계속 정진중이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고회를 맞아 전시회와 서집 발간을 통해 작품 세계를 갈무리하고 싶다는 금초 정광주 작가.



국립현대무용단의 어린이 무용 ‘루돌프’가 19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 원숭이 ‘루돌프’가 할아버지를 찾아요

국립현대무용단 어린이 무용, 19일 광주문화예술회관

2021년 광주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포커스 마지막 무대는 국립현대무용단 어린이 무용 ‘루돌프’로 장식한다. 오는 19일 오후 2시~6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이 공연은 국립현대무용단 어린이·청소년 무용 레퍼토리 개발 프로젝트의 첫 작품이다. 한국적 정서를 현대적이고 독창적으로 해석한 움직임과 구성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무대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고블린파티’(Goblin Party)의 안무가 이경구가 구연동화와 현대무용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도로 창작한 작품이다.

공연에서는 말과 노래, 때로는 랩까지

만날 수 있으며 색감과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이미지와 소리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작품은 겁 많은 원숭이 ‘루돌프’가 새로운 세상과 친구들을 만나며 성장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코가 빨간 사슴 대신, 엉덩이가 빨간 원숭이의 이름이 ‘루돌프’라는 설정에서 출발하여 크리스마스를 맞아 자신의 할아버지를 찾으러 떠나는 루돌프는 다양한 동물 친구들과의 만남, 악어 떼로부터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으로 전개된다.

전석 2만원. 문의 062-613-8233.  
/전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송년 자선음악회가 11일 광주시 북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다.

## 노틀담 형제의 집 후원 자선음악회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11일 북구 청소년수련관

올해 이수인 작곡가와 김애경 작곡가, 박수진 시인 등을 조명하며 이들의 노래를 통해 시민과 소통했던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가 연말을 맞아 자선음악회를 준비했다.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제143회 공연 ‘노틀담 형제의 집’ 후원을 위한 송년 자선음악회가 11일 오후 3시 광주시 북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다.

이날 박호진의 노래지도 아래 황인화, 정의빈이 피아노 반주를 맡고 23명의 회원들과 사랑의하모니, 우가부합창단 등 3개 팀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공연은 우가부합창단의 ‘눈꽃송이’, ‘사랑하는 내 님이여’로 시작하며 살레시오

4년 고은채·이지아 양이 ‘별빛 가득한’, ‘빛으로 만든 세상’을 들려준다. 이어 ‘그리운 금강산’, ‘그리움’, ‘연’, ‘님의 노래’, ‘달밤’, ‘사랑이 시를 쓰네’, ‘우리 어머니’, ‘고향의 노래’, ‘내 맘의 강물’ 등도 무대에 올린다.

공연에는 소프라노 박화자·김명미·나인희·정인숙 등과 테너 조성식·김종석·박상휘·박진영·정광주, 메조 소프라노 박원자, 바리톤 임동운·이길호·고광덕 등이 출연한다.

한편 우리 가곡 부르기 다음 공연은 2022년 1월에 열리며, ‘한국인이 좋아하는 가곡 40여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전석초대. 문의 010-2694-4592.  
/전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새로운 과거, 지나온 미래’ 전 은암미술관 15일까지

잊혀져 가는 구도심의 기억을 함께 공유하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은암미술관은 오는 15일까지 창작공간프로그램 결과보고전시 ‘새로운 과거, 지나온 미래’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은암미술관 계림창작공간에서 2021년 진행된 레지던시 프로그램 결과물을 만나는 기회이다.

지난 일 년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은 현재 재개발이 추진 중인 계림동의 90여 년 된 한옥으로 오랜 정취와 기억을 품고 있는 공간이다.

은암미술관은 이러한 장소적 특성을 중심으로, ‘구도심, 오래된 공간, 재개발, 사라진 기억’ 등의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을 선정, ‘새로운 눈으로 본

과거’라는 컨셉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작가들은 멘토와 1대1 역량 강화 워크숍, 오픈스튜디오, 도시재생 좌담회, 주민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이슈를 공유하고 도시의 문제를 예술로 풀어냈다.

이번 전시에는 오지현(설치, 회화), 이우현(설치) 작가가 참여한다. 14일에는 오지현 작가와 함께하는 ‘두루미 달고나 만들기’ 체험도 진행한다.

지난 전시(11월17일~30일)에서는 엄수경(사진), 윤남웅(한국화), 한희원(서양화) 작가가 작품을 선보였다. 월-토요일 관람. 문의 062-226-667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우현 작 '흔적을 찾아서'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